

# 윤병태 나주시장, 금천 야죽마을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 가져

나주시는 최근 금천면 야죽마을에서 저녁시간대 윤병태 시장과 주민들의 격의 없는 대화 자리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를 가졌다.

나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찾아가는 민박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반남면 자미, 노안면 감정, 이창동 정량마을에서 3차례 주민 대화시간을 가졌으나 '민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되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 4번째부터 공식 명칭을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로 변경했다.

기존 오후 8시로 고정했었던 좌담회 시작 시간도 일몰시간이 빨라진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 한 시간 앞당겨진 오후 7시 또는 마을 여건에 맞춰 대화 시간에 융통성을 기하기로 했다.

야죽마을회관에서 열린 4번째 마을좌담회는 윤병태 시장, 조규권 노인회장, 조종연 이장, 정금순 부녀회장, 김용식 개발위원장, 김선중 전 금천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죽촌리 농로 아스콘 정비', '마을 안길 우천 대비 축구 정비', '벽지노선 버스 증차 및 승강장 정비', '마을100원 택시 혜택 확대', '야죽지석묘군 주변 꽃 식재 및 습터 조성', '화재 대비 소방차 진입도로 확장' 등 일상과 밀접한 편익·기반시설 개선에 윤 시장에게 요청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 노동력

확보', '귀농 활성화를 위한 영농기반 확대' 등도 건의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 개선 요구의 경우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벽·오지마을 100원 택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마을 안전은 신속히 해결하고 많은 마을이 겪는 보편적 현안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기자

## 담양군, '제23회 전국가사문학제' 성료

담양군에서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개최한 '제23회 전국가사문학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이 주최하고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가사로 쓰는 아동문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첫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윤영훈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등 8명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아동문학으로 쓰는 가사문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제9회 한국가사문학상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총 126편을 시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작은 내지 알기로 합의를 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일반부 3명, 학생부 3명을 선정했다.

임명자 씨의 '흰 지팡이 나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박선영 씨의 '함께 가요', 주미선 씨의 '우주열차 정량', 김희숙 씨의 '사이보그의

고전적 산책'이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생부 우수상은 광주 일곡초교 3학년 김예진 외 2명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흰 지팡이 나라'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곳의 소리 문화와 일상을 주인공이 받아들이며 서로 소통하고 공생하는 삶의 한 단면을 담담하게 그려나간 점에서 발상의 참신함을 높이 평가했다.

대회 이튿날에는 '제18회 전국가사시낭송경연대회'가 열려 전국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 47명이 참가했다. 대상은 전영숙 씨, 일반부 최우수상은 이미경 씨, 학생부 최우수상은 박규림(담양무정초등학교 1학년) 양이 수상했다.

일반부 우수상은 윤서영 씨, 김인자 씨, 학생부 우수상은 지윤영(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이정우(담양무정초등학교 1학년), 장려상은 유철종 씨 외 7명에게 돌아갔다. /장진성 기자

## 영광, 절주 및 금주 예방교육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건전한 절주 및 금주문화 조성을 위해 25일까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초·중·고교(5개교) 636명을 대상으로 금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월은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올바른 음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알코올 성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뇌, 신경, 소화기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질환과도 연관돼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갖는게 중요하다.

올바른 음주 습관 10가지 ▶과음하지 않기 ▶술을 섞어 마시지 않기 ▶빈속에 술 마시지 않기 ▶천천히 마시기 ▶물 자주 마시기 ▶매일 마시지 않기 ▶자신의 주량만큼 마시기 ▶약 복용중에 술 마시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술 권하지 않기 ▶혼술 보다는 여럿이 함께 마시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의 주된 음주 경로는 성인이 준 술을 마시는 것(34.2%),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것(33.6%), 음주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절주 및 금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률 기자



수십억 송이 가을꽃으로 유명한 장성 황룡강에 지난 10월 동안 약 77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군은 앞선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 장성 황룡강, 지난 10월에만 77만 명 방문

수십억 송이 가을꽃으로 유명한 장성 황룡강에 지난 10월 동안 약 77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군은 앞선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개최했다. 백일홍, 천일홍, 코스모스 등 강변을 장식한 다채로운 꽃들과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한 플라워터널 조명시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저녁마다 열린 달빛 콘서트, 수상 체험 문(moon) 보트, 장성 맛집이 총출동한 향토식당 등 풍성하게 마련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흥행 요소였다.

군에 따르면 축제와 나들이객 맞이기간에 42만 5천명의 발길이 황룡강으로 몰렸다. 축제 전후로 황룡강을 찾은 인과까지 합산하면 10월 방문객 수가 약 77만 명에 이른다.

최근 장성군은 걷기 코스로 사랑받고 있는 황룡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을 연계하는 '청림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황룡강, 필암서원, 아곡 박수량 배비를 걷기길로 연결해 '문불여장성' 선비문화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유광중 기자

## 화순군, MZ세대 직원 소통 간담회 열어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최근 구복규 화순군수와 MZ세대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젊은 직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화순군은 직원 764명 중 18%인 134명이 20대 직원이다.

이에 군수와 젊은 직원 간 소통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소통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구복규 군수와 화순군청 20대 직원 100여명, 선배 세대(30·40·50대)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밀레니엄(M) 세대인 80년대 초반생을 포함하면 만 42세 이하 직원이 대상이 되므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요 참석 대상을 20대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간담회에서는 익명으로 미리 취합한 MZ세대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에 관해 토론하고 현장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배찬진 재난안전과 주무관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을 대할 때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다음날 민원인에게 전화라도 다시 한번 걸어보라는 조언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에 관해 군수의 생각도 있지만, 다른 세대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선배 세대 직원 몇 명과 간담회를 함께 했다"며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의견도 많았고, 오해에서 비롯한 고충도 있었다.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한 이유를 밝혀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남호경 기자

곡성군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NAVER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